

화학을 넘어... 신소재·배터리·필름 '먹거리' 발굴

SKC

스페셜티 소재 사업 지속 확장

LG화학

중 배터리공장 증설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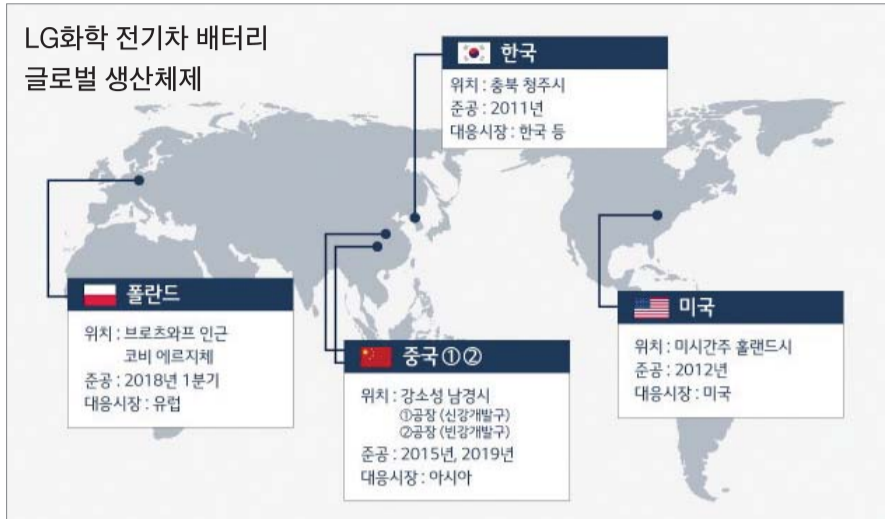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

폴더블폰 핵심 투명PI 필름 개발

화학업계의 신사업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흔들리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제 성장 등으로 이제는 '순수 화학'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C,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화학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신소재 시장에 적극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SKC는 우리화인켐 광학소재 제조 부문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케미칼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광학



용 케미칼 소재는 광학용 폴리우레탄(PU)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원료다.

앞서 SKC는 기존 PU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거듭, 지난해 8월 광학용 PU 소재 상업화에 성공했다. 여기에 고부가 케미칼 XDI를 내재화하면서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XDI는 고굴절도노머 '싸이올'과 함께

광학용 PU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다. 지금까지는 기술 격차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서만 생산해왔다.

스마트폰 등 IT 기기 사용이 늘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광학용 소재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PU 소재는 블루라이트 차단렌즈, 편광 렌즈, 다초점 렌즈, 광변색 렌즈 등 기능성 렌즈나 시력

보정용 렌즈로 쓰이며 시장 규모는 6000억원 정도다.

SKC 관계자는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고부가 P U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제4, 제5의 고부가 아이템을 발굴하고 특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시장인 '차량 경량화'에 집중,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난징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 1조2000억원의 증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LG화학은 한국 오창과 폴란드, 미국 올랜드, 중국 난징 등 글로벌 4개 생산거점에서 2020년까지 110GWh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1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배터리·소재 등 비정유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최근 국내 에너지·화학·배터리업계

최초로 CES에 참가해 전기차 배터리, Li BS(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FCW(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등을 선보였다.

배터리사업의 경우 현재 헝가리, 중국, 미국 등에서 생산 설비 증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세 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서산 공장을 포함해 총 30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이다.

올해 폴더블폰 출시가 예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핵심 소재 '투명PI'도 고부가 소재로 꼽힌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개발한 투명PI 필름인 FCW를 이번 CES에서 공개, 최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준비에 한창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이동수단을 뛰어넘은 자동차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소재는 SK이노베이션이 미래 주력 사업으로 하는 배터리·LiBS·FCW"라며 "배터리·소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포스코 '취업교육' 취업준비생에 호평

포스코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과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등의 수업을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했다. 포스코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료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포스코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인천 송도 포스코인재창조원에서 취업준비생 30명을 대상으로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토크 콘서트'에 참가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배울 수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과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 등의 수업을 포스코 임직원들과 함께했다. 포스코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수료 사진을 찍고 있다. /포스코

LNG선 호조... 조선업계 올 수주목표 상향

현대중, 117억 달러... 전년비 15% ↑
삼성중, 수주 78억 달러 매출 7조
대우조선해양 목표는 내달 공식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계 '빅2'가 올해 수주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수주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올해 목표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목표를 117억달러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목표액인 102억달러보다 15% 높은 수준이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각각 43억5000만달러, 35억3000만달러로 수주목표를 전년보다 상향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계열사의 올해 수주목표는 1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목표액이었던 162억달러보다 18%가량 높아졌다. 지난해 조선부문 목표인 132억달러를 초과한 137억달러를 수주한 실적도 수주목표 상향에 영향을 미쳤다.



대우조선해양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대우조선해양

황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시장은 예정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가 기대된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BP 매드독 FPU, ENI 코랄 FLNG 등 해양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며 2017년 이후 수주한 상선 물량도 건조 착수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를 다음 달 공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은 7조~8조원, 수주목표는 80억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목표액 73억달러 중 68억1000만달러를 수주해 5년 만에 90%가 넘는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상선부문과 특수선 부문 실적이 뛰어났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지난해 LNG선과 VLCC(초대형원유운반선)에 집중했던 것처럼 올해도 같은 분야에 집중해서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문 기자 yw964@

기아차 '쏘울 부스터' 사전계약 돌입

터보 1914만·EV 4600만원부터

기아자동차가 14일 '쏘울 부스터'의 주요 사양 및 가격대를 공개하고 전국 영업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나선다.

쏘울 부스터는 2008년 첫 선을 보인 쏘울의 3세대 모델로 동급 최고 출력 204마력의 파워풀한 주행성능, 완전히 새로워진 하이테크 디자인, 최첨단 멀티미디어 사양 등 강력한 상품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쏘울 부스터는 가솔린 1.6터보, EV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가솔린 1.6터보 모델은 동급 최고 출력 204마력(ps), 최대 토크 27.0kg·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춘 1.6터보 엔진과 기어비 상향조정 등으로 응답성을 개선한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를 탑재해 최강의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쏘울 부스터에 탑재된 터보 엔진에는 응답성을 개선한 터보 차저를 적용해 고속뿐만 아니라 저속 구간에서도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준다. 가격은 1914만~

2376만원이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아차의 최첨단 R&D 기술력이 집약된 전기차로, 1회 충전 시 총 386km를 주행할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이를 위해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W의 출력을 확보하고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저부하 토크 영역에서의 효율을 증대시킨 모터를 장착했다.

이 외에도 EV 모델에만 적용된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SCC w/S&G) 등으로 더욱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다. 가격은 4600만~4900만원이다. /양성문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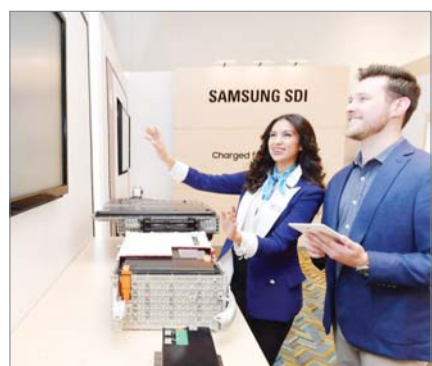
삼성SDI, 美 모터쇼서 배터리 혁신 대거 선보

2019 티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 제시

삼성SDI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핵심인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을 제시, 기술 차별화에 나섰다.

삼성SDI는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CO BO)센터에서 열리는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NAIAS 2019)'에서 혁신 소재를 적용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차세대 배터리 셀을 대거 전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SDI의 이번 디트로이트 모터쇼 전시 콘셉트는 'Charged for Auto 2.0'으로 '자동차 2.0 시대를 위한 충전 완료'라는 의미다. Auto 2.0은 자율주행, 전동화, 초연결성, 차량 공유화로 대변되는 시대로 2017년 골드만삭스가 첫 도입한 용



14일(현지시각) 삼성SDI가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가해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SDI

어다. 전시는 ▲EV(완전 전기차) ▲PHEV ▲LVS(내연기관을 위한 효율성 제고)의 3가지 스토리로 구성했다.

삼성SDI는 600km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셀과 37Ah(암페어아워)에서 78Ah가

지 EV, PHEV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별 배터리 셀 라인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소재 및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가 고민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에너지밀도 증가를 통한 주행거리 향상과 전기차 가격 인하다. 삼성SDI가 이번에 소개한 신제품들은 에너지 용량을 크게 증가시킨 혁신적인 셀이다. 셀을 채택할 경우 차량당 셀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메이커들의 원가 혁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삼성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전고체전지 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고 한층 진화된 LVS(Low Voltage System) 팩 등 다양한 혁신 제품들도 전시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